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낸 타임	30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⑨ 00 신문이야기 들춰주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살아보세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안방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재) (장사의 신-객주2015)	00 주말특별기획 (내 불, 금사월)(재)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특제
⑫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재)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①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키즈 사이언스 5(재)	00 건강클리닉
②	00 광복70년 국가미래전략 종합학술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독 특 키즈스쿨	00 영재발굴단(재)
③ 00 직언직설	10 네트워크특선 원앙전쟁 최전선을 가다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마법천주동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④ 30 쾌도남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TV유치원 30 이우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40 동물의 세계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우리기 탐구생활
⑤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비타만(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개막 축하쇼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2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⑧ 30 풍문으로 들었SHOW(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2TV 저녁 생생정보 2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의 사람들 55 스포터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객주2015)	00 수목미니시리즈 (그녀는 예뻤다)	00 드라마 스페셜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백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⑫ 50 특별기획 미래 농업 백서	5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고수다	15:15 마야의 모험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5:30 건강한 아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5:40 다문화 사랑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0 모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새	11:10 다큐 오늘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재)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풍뎉이(재)	20:40 다큐 오늘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6:45 엉덩영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로보가 폴리	12:10 사선에서	17:30 꼬마버스 타요(재)	<필리핀 루스 섬 종단여행>
08:00 당동영 유치원 1	13:05 지식채널e	17:45 로보가 폴리	21:30 한국시행
08:10 한글이 야호2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서울산책>
08:20 당동영 유치원 2	13:40 사이언-지구인 자격평가	18:05 출중 슈퍼왕스	21:50 EBS 다큐 프라임
08:30 두더지공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22:45 극한직업
08:40 당동영 유치원 3	14:00 미앤미 로망	18:25 내 친구 아서	23:35 한국 미술 기행
08:45 방귀대장 풍뎉이	14:30 코코몽2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24:10 한국영화특선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팡팡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콜랜드 절대비밀	<기쁜 우리 젊은 날>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11:00 " <수학A>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파개념>
01:40 " <화통과 통계>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2:30 " <기하와 벡터>	14:0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03:20 " <수학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15:40 " <기하와 벡터>
05:00 뉴탐스런 <화학I>	16:30 " <수학II>
06:00 " <지구과학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4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18:10 EBS N제 <수학A>
08:20 2016 수능개념 <윤리주의 영어>	19:20 " <동아시아사>
09:10 " <이른주의 수학II>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수학A>
10:10 7030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회화과 작문&독서와 문법 A>

EBS플러스2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강좌	15:50 " <사회 4-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20 " <사회 5-2>
08:30 매경 TEST 시험대비강좌	16:50 " <사회 6-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5-2>
09:10 TV중학 <국어(1)(2)>	
09:50 " <수학 1(하)>	17:50 다큐 오늘 <국어(5)(6)>
10:30 " <도덕 1>	18:00 TV중학 <국어(5)(6)>
11:10 " <국어(3)(4)>	18:40 초등스토리 한국사 (1)(2)
11:50 " <수학 2(하)>	19:20 필독 중학 국어 <시>
12:30 EBS 특강 <사회 1>	20:00 EBS 인문학특강 <역사 2>
13:10 등업산공 <사회 2>	20:50 EBS 기획시리즈 <역사 2>
13:50 " <사회 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역사 2>
14:30 " <역사 1>	22:00 등업산공 <역사 2>
15:10 어휘왕!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22:40 " <과학 3(상)>
15:20 만점왕 <사회 3-2>	23:20 필독 중학 <사회 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8일(음 9월 16일 丁丑)

子	48년생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나 상당한 변수가 보인다. 60년생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72년생 발효되는 작용과 같은 이치이다. 84년생 객관적인 타당성만이 소기의 성과를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49, 26	午	42년생 중도에 그만두었던 것을 되찾게 되리라. 54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는 과정에 놓인다. 66년생 궁극적으로는 황금 골짜기에 이른다며 비유할 만하다. 78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2, 79
丑	49년생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61년생 희귀한 행운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73년생 자신부터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85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05	未	43년생 내버려둬도 스스로 정리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5년생 지장을 줄만한 하지가 보인다. 67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79년생 행령성이 깨지면 애로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11
寅	38년생 서서히 풀릴 것이다. 50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62년생 주마가관하라. 74년생 징후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리라. 86년생 의사표시가 정확해야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9, 63	申	44년생 생기발랄한 판도가 조성되리라. 56년생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면 만사가 틀어지거나 손해가 생기며 마련이다. 68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80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4, 55
卯	39년생 비우면 채워질 것이요 집착하면 사라질 것이다. 51년생 작용력의 여파를 간파하면 불리해진다. 63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75년생 방도가 없다. 87년생 가까운 이의 세심한 배려 덕택에 진전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58, 07	酉	45년생 금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57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뤄지느니라. 69년생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81년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 근본적인 대치를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70, 85
辰	40년생 행운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52년생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소기의 성과는 거두게 된다. 64년생 인간은 겪어 봐야 알고 물은 건너봐야 안다. 76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행운의 숫자 : 74, 30	戌	46년생 천재일우의 희귀함을 접하게 된다. 58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많은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 70년생 끝까지 절제된 언행을 한다면 사비 수를 피해 갈 수 있다. 82년생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36
巳	41년생 바라던 바가 현실이 된다. 53년생 원인 요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장을 받는다. 65년생 견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77년생 조심성이 지나치면 위축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66	亥	47년생 강력한 타격이 아니라면 무시해도 하등의 장애가 없다. 59년생 기본적인 개념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71년생 분수를 맞지 않다면 오히려 잃는 바가 많을 것이다. 83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행운의 숫자 : 88, 94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드라마에 어울린다는
선입견 꼭 깨고 싶어요”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까칠 여배우 역 성유리

“집에서 키우는 수컷 강아지가 열일곱 살인데 몇 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 늙어가는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아 슬프기도 하고, 어디 며칠 다녀오면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져 집을 비우기가 두려워요. 더 잘해줘야 하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가면 조금 이따가 안아줘야지 하다가 하루가 가버려요.”
오는 29일 개봉하는 유니버스 영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에서 도도하고 까칠한 성격의 여배우 역을 맡은 가수 출신 여배우 성유리(34)를 만났다.
성유리는 영화의 제목과 같은 말을 최근에 하고 싶은 적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이 연예계에 막 데뷔했을 때부터 키우는 애완견 ‘잉잉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내 닭동 같은 눈물을 툭툭 흘렸다.
2003년부터 드라마 다수에 출연했고, 2009년 ‘토끼와 리저드’로 영화에까지 발을 들인 배우에게 ‘감정이 참 풍부하다’는 말은 당연한 수사일지 모른다. 한 시간 남짓했던 인터뷰에서 포착한 성유리의 또 다른 매력은 천성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과 거침없는 자아비판이었다.
“영화에서 제 입지가 튼튼하지 못하잖아요. 성유리라는 배우의 연기를 보려고 이번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고요. 감독님이나 제작자분들도 긴가민가하시는 것 같아요. 저라도 입증된 것이 없는 배우에게 임팩트 강한 역할을 맡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연예계 데뷔 18년차의 가수 출신 배우지만, 영화배우로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가려는 자세도 느껴졌다. 이번이 네 번째 영화 출연인 성유리는 독립영화였던 전작 ‘누나’(2013)에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에 초청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였다.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에도 출연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하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작품을 고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영화) 다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맑고 착한 ‘캔디’같은 이미지라던지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어울린다는 선입견이 짙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가 감독님을 직접 찾아뵙고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웃음)”

거둬들인 질문에 성유리는 차기작으로는 20대의 풋풋한 사람이 아닌 성인 남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진한 멜로’ 영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노출에는 자신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직도 자신이 ‘신인 배우’처럼 느껴진다는 그는 가장 큰 고민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갈등이 생기면 피하려는 소심한 성격’이라고 했다.



“감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제가 정말 일을 잘 못하거든요. 감독님을 단다고 해야 하나... 무서운 감독님 밑에서는 기를 못 펴요. 선배님들은 감독님과 기 싸움 잘해야 한다고 조언해주시는 데... (웃음) 저는 갈등을 뭘 수 있으면 피하려는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제가 극복해야 할 점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잘하는 편이지만, 의사표현을 잘하는 기술이 제게 가장 필요해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성유리가 나와서 안 본다는 선입견만 없으면 좋겠다”면서 “연출자들이 캐스팅할 때 이 배역에 ‘성유리는 어쩔까’라고 한 번이라도 거론될 수 있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드라마를 많이 해서 임팩트 강한 연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뇌리에 박혀 있었어요. 조금만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기자로 제가 돋보이는 작품 하나만 만나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편하게 가져요. 아직 해보지 않은 역할도 너무 많고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작품 하나하나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해요.”

“배우들도 추리 삼매경
그 쫄깃함 함께 느꼈으면”



SBS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한소은 역 문근영

“시청률이 저조하지만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추리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채 보여드리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웰메이드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필모그래피에 이 작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SBS TV ‘마을-아치아라의 비밀’(이하 ‘마을’)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 아치아라 마을을 찾았다가 마을 전체와 연관된 비밀에 휘말리는 한소은 역을 맡은 문근영은 27일 오후 일산 SBS 탄현제작센터에서 아쉬운 시청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을”은 황정음의 열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MBC TV ‘그녀는 예뻤다’와 장혁 주연의 대작 ‘장사의 신-객주2015’에 밀려 시청률 5%대에 머물고 있다.

문근영은 “한회 한회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다보니 전 회를 보지 못한 시청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제작진들이 홈페이지 등에 요약본을 올리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마을”은 폐쇄적인 작은 마을 아치아라에서 2년 전 실종된 미술 교사 김해진이 백골 사체로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해진은 마을의 권력자 서창권의 내연녀였고 그의 아내 윤지숙과 다름을 벌인 뒤 사라졌다. 그러나 외지인에게 차가운 아치아라 사람들은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서창권의 딸이자 해진과 가까웠던 유나 외의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는 잊혀졌다.

시청자들의 관심사는 김해진을 죽인 범인에 쏠린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용의 선상에 올라 있을 정도.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문근영, 육성재, 윤주완, 장희진, 안

서현 등 배우들은 모두 “저도 범인이 궁금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근영은 “혹시나 알려주실까 해서 대본이 나오면 감독님 앞에서 이런저런 추리를 하는데 감독님이 웃고 가신다”며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더 예리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참고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문주완도 “촬영 때마다 배우들한테 가서 ‘범인 알아?’라고 묻고 다닌다”며 “제가 맡은 기현은 죽은 해진과 단둘이 찍힌 사진이 나오는 등 너무 일찍부터 범인인 것처럼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근영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육성재에 대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지 않고 연기자로 데뷔해도 좋은 연기자로 평가 받았을 것 같다”며 “연기에 접근하는 태도도 굉장히 순수해서 저도 여러 부분에서 자극을 받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1999년 아역으로 데뷔한 문근영은 어느새 15년이 넘는 경력에, 30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20대에 많은 일을 겪었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었기 때 문인지 ‘20대 잘 보냈다. 빨리 30대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며 “날씨가 바뀌고 해가 바뀐다고 많은 게 달라지는 게 아니듯 30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어느 순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고 진중한 면모를 내비쳤다.

“소운이가 아치아라 마을에 오게 된 이유, 언니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중반 이후부터는 언니와 마을의 비밀을 찾는 데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배우들은 대본을 받을 때마다 너무 재미 있어서 다음 촬영이 기대되는데 시청자 분들도 그 ‘쫄깃함’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